

230.005
7364
V.21

고신신학 21

고문 Advisers | 김병원 박사, 전호진 박사, 황창기 박사

편집인 General Editor | 신득일 교수 Prof. Dr. Deuk-il Shin

위원 Members of Committee

- 강용원 교수(고신대, 교회교육 및 봉사신학, 은퇴)
- 김성수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은퇴)
- 김운태 교수(백석대, 교의학)
- 김진섭 교수(백석대, 구약학)
- 배아론 교수(고신대, 선교학)
- 배정훈 교수(고신대, 교회사)
- 송영목 교수(고신대, 신약학)
- 신경규 교수(고신대, 선교학)
- 신득일 교수(고신대, 구약학)
-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독교윤리학)
- 심상범 교수(총신대, 신약학)
- 우병훈 교수(고신대, 교의학)
- 이병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 이복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은퇴)
-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 은퇴)
- 이신열 교수(고신대, 교의학)
- 이정기 교수(고신대, 태권도선교)
- 이학재 교수(대한신대원, 구약학)
- 이현철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 이환봉 교수(고신대, 교의학, 은퇴)
- 임영효 교수(고신대, 봉사신학 및 선교학, 은퇴)
- 임창호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 장세훈 교수(국제신대원, 구약학)
- 전광식 교수(고신대, 현대신학 및 기독교철학)
- 조성국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철학)
- 주기철 교수(고신대, 신약학)
- 최갑종 교수(백석대, 신약학, 은퇴)
- 최승락 교수(고신대, 신약학)
- 최윤갑 교수(고신대, 구약학)
- 한수환 교수(광신대, 기독교윤리학)



고신대학교



EM00194918

연락처 | 606-701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T e l | 051-990-2348, 990-2276

F a x | 051-911-2525

E-Mail | dishin@kosin.ac.kr

고신신학회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개혁주의적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형성된 모임으로서 신학전문학술지 「고신신학」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신학연구에 관한 사역을 담당하는 신학자 모임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활동에 뜻을 같이 하여 학술연구로 참여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외치로 194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Tel: 051-990-2348, 990-2276 Fax: 051-911-2525

구독료는

한 권당 10,000원이며, 구독료와 뜻있는 교회 및 독자들은 아래 구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600015-0334180-12 ● 고신신학회
국민은행 ● 105-01-0966-273 ● 고신신학회

본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 학술지 책임자의 서면인가 없이 복사(프린트, 제록스, 마스터, 사진 및 기타) 할 수 없습니다.

* 이 「고신신학」은 고신대학교의 후원에 의해 출간되었음

❖ 서 문 | 신득일 편집인 001

특집 1

3.1운동과 구약성경: 「독립 통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003
최윤갑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2

야고보서 5:7-12이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 033
주기철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3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는가?: 성경해석과 3·1운동 069
배정훈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4

3.1운동과 회중 찬송가의 공공성 105
송영목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 정미경 _ 고신대 강사

고신신학 제21호

차례

구약학

구약과 다문화가정 151

신득일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교의학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주석법과 설교론 173

우병훈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서문

올해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지 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3.1. 운동은 일제강점에 대항하여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만세운동이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난 비폭력 저항정신과 평화운동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유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3.1. 절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린다. 특별히 이 운동에 기독교의 역할이 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포함되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에서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던 것은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이번 고신신학은 3.1. 운동을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기독교적 평가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집을 구성했다. 여기서 이 의미 있는 민족적 저항운동에 기독교와 교회가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다시 조명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일본 군국주의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른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고신대학교에서 3.1. 운동과 관련된 신학논문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백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금번 호는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네 분의 교수들이 기고한 특집 주제 논문에 두 편의 자유주제 논문이 첨가되었다. 모두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한 논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더운 날씨에 논문을 써서 기고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교정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교목실의 박은규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고신신학』이 지속적으로 교회의 사랑을 받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인 신득일

3.1운동과 구약성경:

「독립통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Old Testament

최윤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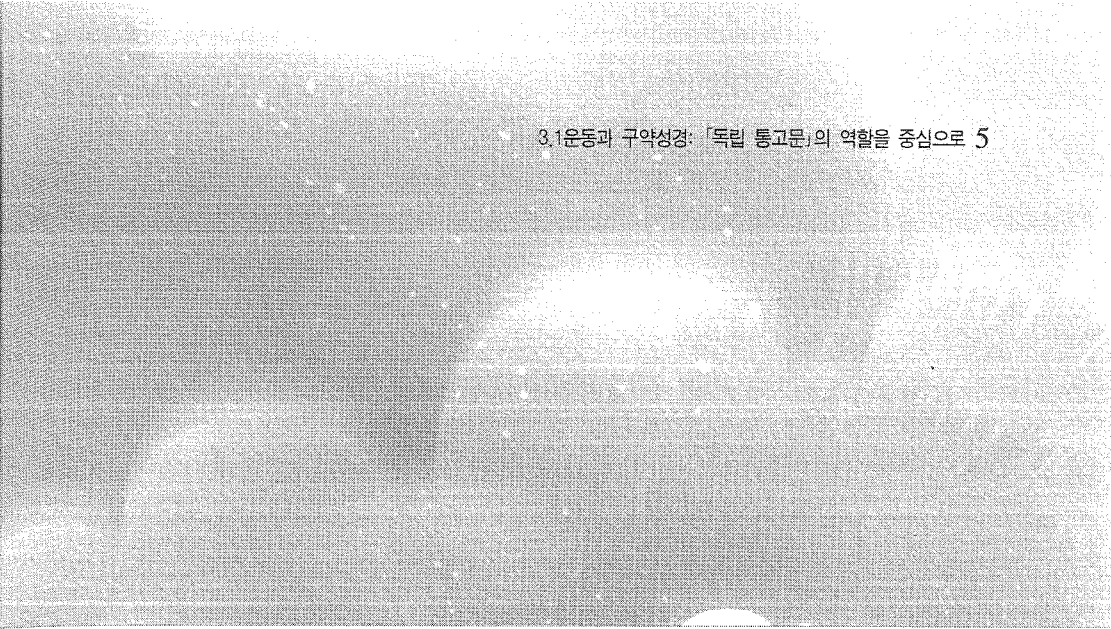
고신대(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9
2. 3.1운동과 성경 | 11
3. 3.1운동과 「독립단 통고문」 | 18
 - 3.1.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과 신학적 메시지 | 19
 - 3.2.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의 메시지 | 22
4. 구약성경이 3.1운동을 향해 가진 신학적 함의 | 28
5. 나오면서 | 30



요약



3.1운동과 구약성경: 「독립 통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글은 구약 성경이 3.1운동에 끼친 신학적 역사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운동의 진행과정에서 한국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럼, 3.1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구약성경은 한국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3.1운동과 성경의 관계를 다루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3.1운동에 어떤 주도적이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살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3.1운동과 「독립단 통고문」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 우리는 「독립단 통고문」에 사용된 구약성경-이사야 10장, 예레미야 12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이사야 59장-이 당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사상을 전달하였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독립단 통고문」에 사용된 구약성경이 당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기독교인들과 더 포괄적으로 3.1운동을 향해 던진 신학적 함의를 논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논지는 아래의 주장을 논증하겠다. 구약성경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사상적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세상과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Old
Testament*

주요어

3.1운동, 구약성경, 독립단 통고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한국 기독교

Abstrac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Old Testament

Prof. Dr. Yun-gab Choi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influence of the Old Testament up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undergoes three major steps. First, in the first step, we will expl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Bible and see how the Bible contributes to the this movement. Second step will guide us to apprec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Independence Notice. In particular, we will investigate the Old Testament text-Isa 10, Jer 12, Deut 28, and Isa 59-in the Independence Notice and how these texts contribute to the christian who suppor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inally, in the third step, we will explore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Old Testament upon the Christian at that time and more broadly up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above discussion, I will argue that by providing the theological and theoretical instruction to the Christian at that time, the Old Testament helps them to

interpret their world and events through the eyes of faith, thereby guiding them to suppor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promptly.

Keywords |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Old Testament, The Independent Notice, God's Sovereignty and Rule, Korean Christianity.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구약 성경이 3.1운동에 끼친 신학적 역사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는 3.1운동이 초기(점화) 단계에서 전국화(거족적) 단계로 발전하고, 한민족 백성들이 항일독립투쟁을 지속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형석 교수는 3.1운동 당시와 그 직후 한국 기독교의 역할과 위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던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3.1운동을 선도하여 기독교는 한국 민족 속에 소망스러운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¹⁾

우리는 3.1운동을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 아닌 신앙적 현실 참여”로 규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보다 총체적인 안목에서 3.1운동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 조금 더 세분화하여, 박용규 교수는 그의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라는 논문에서 한국 (서북)장로교회가 3.1운동에 끼친 역사적, 신앙적 영향력을 밝혔다.³⁾ 그러므로 3.1운동에 대한 기독교 신앙운동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의 역할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1)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기독교사상』 35 (1991), 37.

2)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4.

3)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 『신학지남』 77 (2010), 95-136.

4)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4.

이만열 교수와 이덕주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심도있게 조명하였다. 이들은 3.1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전국적 단계의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사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결과 3.1운동이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심도 있게 밝혔다.⁵⁾ 특별히 이만열 교수는 3.1운동 당시 정의, 자유, 평화에 기반 한 기독교 신앙은 자주, 평등, 해방을 목표로 한 민족적 양심과 결합하여 ‘민족주의 신앙’을 탄생시켰고, 결국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사상적 신앙적 기반 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밝힌다.⁶⁾ 그러나 이들의 공헌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교회와 3.1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이 민족 운동에 끼친 영향력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 본고는 3.1운동과 구약성경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구약성경이 3.1운동에 끼친 신학적 역사적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3.1운동과 성경의 관계를 다루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3.1운동에 어떤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살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3.1운동과 「독립단 통고문」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 우리는 「독립단 통고문」에 사용된 구약성경-이사야 10장, 예레미야 12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이사야 59장-이 당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사상을 전달하였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5) 초기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기독교사상』 34 (1990), 113-32;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7-20; 윤경로, 『105 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일지사, 1990); 윤경로, “신민회와 남강의 경제활동 연구,”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 (서울: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88), 74-11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3-56;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37-48; 송건호, “3.1운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23 (1979), 60-67.

6)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19-20.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독립단 통고문」에 사용된 구약성경이 당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기독교인들과 더 포괄적으로 3.1운동을 향해 던진 신학적 함의를 논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논자는 아래의 주장을 논증하겠다: 구약성경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사상적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세상과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2. 3.1운동과 성경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신학적 역사적으로 3.1운동에 끼친 영향력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당시 3.1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기독교가 보여준 주도적인 역할을 살피고, 그것의 사상적인 동인(動因)으로써 성경 말씀 사용의 역할을 살피도록 하겠다.

한국 기독교는 3.1운동을 준비하고, 그것의 점화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⁷⁾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9개 곳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적인 단계로 확산되어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도하였던 기독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⁸⁾ 김양선은

7) 이만열은 3.1운동의 준비, 점화과정에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첫째, 평양의 서우혁과 서울의 이갑성에 의해 기독교 중심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이 준비되었으며, 이것이 이승훈에 의해 천도교, 불교와 합류되었다. 둘째, 2독립선언서의 주체는 학우회였지만 그 실체는 송계백, 서춘, 백관수, 윤창석, 김도연 등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48일 가운데 24인이 기독교인이었다. 넷째, 선언서에 나타난 독립사상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평화이다. 이러한 사상에 대해 독립선언 초안자인 최남선은 선언서의 내용이 기독교 이념과 관련됨을 증명하였다.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14을 참조하라.

당시 3.1운동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보여준 주도적인 역할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의 종교적 분포가 기독교인 16인, 천도교인 15인, 불교인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3.1운동의 주도권이 기독교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거니와 3.1운동의 시위만세 역시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서울 평안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등 제 1회 만세 시위처가 모두 기독교회가 주동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전국적으로 번진 만세 시위 역시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3.1운동은 종파와 계급을 초월한 거족적 독립운동이었지 마는 기독교회라는 주도체가 있어서 출발되었고 진행되었으며 정부기구의 조직에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위정자들의 기독교회와 교인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거의 거족적인 수에 미친다. 그러나 대량 검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독교인을 더 많이 체포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전 촌락이 만세를 불렀는데 기독교인만 잡아 갔다. 경찰과 헌병들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기독교인 여부를 묻고 기독교인일 때에는 용서없이 구타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인은 총살한다고 위협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큰 참화를 입은 곳도 교회와

교회학교였다. 서원 제암리 교회당 학살사건, 강서 사천교회 학살사건, 정주 교회 학살사건, 강계 교회 학살사건, 위원 교회 학살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사건, 북간도 노루바위 교회 및 서간도 각지 교회 학살사건, 정주 오산학교 피소사건등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가혹 처참한 박해였다.⁹⁾

당시 3.1운동이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의 준비 단계와 전국화 과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조적 뼈대와 조직망을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 16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3.1운동의 수뇌부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체포, 투옥자와 관련하여, 1919년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하였고,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이고,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다는 점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¹⁰⁾

한국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터전 위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이념을 체득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신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의 국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일독립운동에 앞서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의 한국 침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기독교는 ‘충군애국(忠君愛國)’

8) 이만열은 3.1운동의 전국화(거족적) 단계의 역할에서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첫째,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있으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다. 3월 1일 첫날 서울 외의 8곳이 모두 기독교계 중심이었고, 의주와 평양은 목사들이 주동하였다. 둘째, 만세운동의 주동세력이 뚜렷한 340여 회는 311개 지역으로 압축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78개, 천도교 66개,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 42개 지역으로, 기독교가 25% 내지는 38%였으며, 기독교나 천도교가 아닌 지역은 125개 지역이었다. 일본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5월에, 기독교인의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피검된 자 46,948명, 가옥 소실 724채, 교회당 소실 59채, 학교 소실 2개이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16.

9)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기독교문사, 1980), 115-17;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 『신학지남』 77 (2010), 108-09에서 재인용 함.

10) 이만열은 당시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고, 기독교인이 2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주동세력면에서 25-38%, 체포, 투옥면에서 17-22%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16.

과 ‘국권회복(國權恢復)’으로 표현되는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3.1운동 이후 침략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되는 ‘민족주의 신앙’ 노선을 꾸준히 견지하였다.¹¹⁾ 그러므로 기독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은 진행될 수 없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기독교는 3.1운동에서 가장 큰 기간 세력이었으며, 교회는 학교와 함께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다.”¹²⁾

그렇다면, 지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신앙적 동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적 고백과 헌신으로써 3.1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중찬송가와 함께 그들의 신앙을 뿌리부터 형성하였던 ‘성경’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¹³⁾ 한국기독교속에서 성경말씀 연구와 선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 신앙적 관점에서 3.1운동과 그 후 일련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기반위에서 독립운동의 진행 방식과 이후의 민족적 소망을 발견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성경 연구를 통해, 3.1운동과 그의 시대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다. 김학중은 길선주 목사의 성경연구와 역사관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1)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6.

12) 신용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기독교사상』 28 (1984), 138.

13) 이상일 교수는 3.1운동과 그 직후에 회중찬송가가 기독교인들과 대중가운데 애국신앙과 역사참여, 연대와 동참, 그리고 독창성과 문화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는 찬송가의 역할을 이렇게 기술한다: “비록 애국 찬송가가 공인 찬송가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찬송가를 통해 국내외의 항일운동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대부분의 독립가와 애국계몽가가 찬송가를 개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기독교계 사립학교와 교회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찬송가를 민족중흥의 노래로 불렀다. 그래서 찬송가는 애국가와 독립가이기도 했다. 애국적인 가사가 아니더라도, 찬송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항일운동이었다.”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 (2018), 313과 전체 글을 참조하라.

조선에 해방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마지막 시대 세계 전쟁이 발생할 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길선주는 일제의 탄압이 아무리 심해지고 가혹해질지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성경만을 신뢰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그는 시대의 모든 일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그가 중심이 되어 치른 3.1운동도 일제에 경종을 울리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하였다. 하나님이 인간과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불의가 판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만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연구하여 많은 백성에게 진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¹⁴⁾

길선주 목사는 성경 연구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일본의 지배와 속박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믿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앞장서서 3.1운동을 이끌었던 이승훈과 기독교 지도자들(신석구, 김창준, 박희도)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고백하였다.¹⁵⁾ 그들속에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가 없었다면, 결단코 일본 재판장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3.1운동이 전반적으로 ‘평화적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성경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크게 작용하였다.¹⁶⁾ 준비 단계에서부터 거족적 대중 투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측은 천도교와 달리 비폭력

14) 김학중, 『한국교회 부흥의 꽃을 피운 초석:길선주』 (서울: 넥서스Cross, 2010), 132-33.

15)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46-47;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기독교사상』 35 (1991), 42-43.

16)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9.

평화운동 원칙을 고수하였다.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기독교측의 ‘독립 청원론’과 천도교측의 ‘독립 선언론’은 팽팽히 맞섰다. 이후 기독교측이 양보함으로써, 3.1 운동이 전반적으로 독립 선언론의 규정 아래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독립 청원론이 지향하는 비폭력 평화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 5:39),”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서라야 설명이 가능하다.¹⁷⁾ 비록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원리 아래에서 암울한 현실과 일제의 탄압을 극복하려는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성경적 희생정신은 3.1운동이 거족적 민족 해방운동으로 불타오르는데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 하였다. 기독교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일제의 무력적 탄압과 고문을 예상하며 3.1운동에 동참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큰 두려움과 염려가 앞섰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은 그들이 3.1운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일인이었던 신석구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적 희생정신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가 무서움을 극복하고 3.1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근본적 힘이 되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쓴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은 수백의 심중에 민족정신을 심는 것이다. 설혹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 남매 심중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 하여도 족하다고 생각하였다.¹⁸⁾

요한복음 12장 24-26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가르침은 그가 항일 민족독립운동에 임함에 있어 가졌던 마음의 극심한 두려움과 부담을 극복하고, 민족 독립에 대한 신앙적 교훈과 비전을 갖도록 하였다. 신석구 목사 뿐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였던 기독교인들 또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3.1운동을 향한 성경적 희생정신과 담대함을 가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조국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그 바탕위에서 그들은 신앙고백과 민족사랑과 독립운동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미 구약 성경의 인물들-요셉, 모세, 삼손,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대비하였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해방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을 이해할 뿐 아니라 독립 또한 기대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3.1운동에서 신구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민족정신에 끼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세계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세계관, 3.1운동의 평화적 비폭력 저항운동 방식, 그리고 성경적 희생정신을 형성 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은 3.1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실제적 방식과 동력을 제공하였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의 사상적 신학적 바탕위에서 신앙과 민족사랑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속에 형성된 민족적 신앙의 관점에서 3.1운동과 그 이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¹⁹⁾

18)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기독교사상』 35 (1991), 47-48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19)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19.

1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41.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3.1운동과 그 운동에 동참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사상적 기여를 하였을까? 우리는 「독립단 통고문」을 분석함으로써 구약성경이 3.1운동에 끼친 신학적 사상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겠다. 「독립단 통고문」은 3.1운동에 임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행동지침서이다. 눈여겨 볼 점은, 우리는 이 통고문을 통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심도있게 접할 수 있었고, 그 사상적 신학적 터전위에서 3.1운동에 동참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단락에서 3.1운동과 「독립단 통고문」의 관계를 논하면서, 구약성경이 3.1운동에 끼친 신학적 사상적 영향을 살펴도록 하겠다.

3. 3.1운동과 「독립단 통고문」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였던 3.1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동안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을 반추할 때 “한국 교회의 주도적 참여라는 운동의 주도성과 양적인 참여”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²⁰⁾ 물론 이러한 시도도 필요하고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당시 개개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3.1운동에 참여하였는지 살피고, 그것의 신앙적 사상적 동인을 밝히는 것은 3.1 운동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독립단 통고문」은 당시 3.1운동에 임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 방침과 신앙적 자세를 전하였기 때문에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단 통고문」이 지정한 구약성경을 읽었던 성도들이 3.1운동과 그 이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매일 기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료는

20)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독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44.

구약 성경이 3.1 운동에 직간접으로 끼쳤던 신학적 사상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3.1.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과 신학적 메시지

「독립단 통고문」은 1919년 3월 3일에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통고문은 김병조 목사가 중국 상해에서 펴낸 『한국독립운동사략』의 상편에 수록되어 있다.²¹⁾ 만세 시위가 한창 고조될 즈음에 서울에 먼저 뿌려졌던 이 유인물은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투쟁방식과 신학적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립단 통고문」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신앙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단 제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참뜻을 훼손할 뿐인즉 각자 주의하기를 바라며, 신도는 매일 세 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하였더라.²²⁾

이 유인물은 당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 일본인들에게

21) 김병조, “독립단 통고문,”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이:1920), 상편 34.

22) 김병조, “독립단 통고문,”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이:1920), 상편 34.

들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매일 세 번 3.1운동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한다. 이 통고문은 기독교의 비폭력 평화운동 원리와 정신을 제공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적 행동양식들-기도, 금식, 그리고 성경 묵상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통고문은 짧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²³⁾ 그것은 이 통고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도록 권장되었던 성경 읽기에 잘 나타난다. 통고문에 의하면, 성도들은 월요일에 이사야 10장, 화요일에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 신명기 28장, 목요일에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에 로마서 8장을 읽어야 했다. 이 본문들은 “모두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민족적 고난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대입”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 개입 덕분에 민족이 일제의 침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제시한다.²⁴⁾ 이와 같이, 3.1운동의 성공과 민족의 해방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달려 있다는 통고문의 성경적 지침은 자연스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금식과 뜨거운 기도에 헌신하도록 하였다.

요일별 각 본문과 그것의 신학적 개요를 차트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표 1〉 「독립단 통고문」의 요일별 말씀과 개요

요일	본문	내용
월	이사야 10장	유다는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고, 반면 앗시리아는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 받을 것이다.
화	예레미야 12장	의인인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아나돗 사람들의 행동함에 탄식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견딜 것

23)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43.

24)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46.

요일	본문	내용
		과 장자 악한 유다와 이웃들에게 임할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신다.
수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심판을 다룬다.
목	야고보 5장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신다.
금	이사야 59장	시온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회개와 공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토	로마서 8장	성령을 통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 소망, 사랑, 그리고 종말론적 부활과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첫째, 고통받고 있는 우리민족의 현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둘째, 고난받는 민족이 인내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셋째, 침략자(일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넷째, 한 민족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 영광, 그리고 승리를 누리게 된다.²⁵⁾ 이와 같은 신학적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통고문에 명시된 성경 구절들을 매일 읽었던 성도들은 당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을 통한 민족의 회복과 승리를 직간접적으로 묵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적 몸부림으로써, 3.1운동에 동참하여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임에 분명하다.

25)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40.

3.2.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의 메시지

「독립단 통고문」은 구약성경을 비중있게 다룬다. 거족적 3.1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일본인들을 향한 비폭력 평화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중 4일 동안 구약성경을 읽고, 그 본문들의 신학적 메시지에 근거하여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구약성경이 3.1운동을 지지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3.1운동이 구약성경이 주창하는 신학의 바탕위에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각각의 구약성경 본문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3.1운동에 동참하였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함의를 전달하였는가? 아래에서 각각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살펴보고 하겠다.

3.2.1.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은 불의한 유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과 그 이후 남은 자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룬다. 아울러 유다를 괴롭힌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이 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의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1-4절), 완악한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5-19절), 여호와께 돌아오는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20-23절), 그리고 앗수르의 멸망(24-34절). 비록 앗수르가 불의하고 경건치 않았던 유다를 탄압하고 괴롭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5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오만하였던 앗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결국 이사야 10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그치고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하고 완악한 앗수르는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한다(24-26절, 33-34절).

이사야 10장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큰 신학적 가르침과 영적 통찰을 제공하였을 것임에 분명하다. 먼저, 이사야 10장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와 열강을 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준다. 이 성경을 읽는 성도는 특별한 신학적 지식과 식견이 없더라도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5절)”을 읽으면서 앗수르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열강의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23절 (“이미 작성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을 읽는 성도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2절과 33절은 유다와 특별히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잘 묘사한다. 일제 강점기 때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10장에 기술된 유다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여겼을 것이다.²⁶⁾ 즉 유다를 침략하고 온갖 폐악을 자행한 앗수르의 모습을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힌 일본과 대별하여 해석했을 것이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일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와 앗수르를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일본의 미래 또한 의롭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였다.

둘째, 이사야 10장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회복’을 강조한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한 앗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한다(7절, 12절, 16절, 33-34절). 반면 24-25절과 27절은(“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26)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5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유다의 남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묘사한다.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시 성도들은 도를 넘는 침략과 약탈 행위를 일삼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믿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서 일제 침략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다시금 기름짐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였다.

끝으로, 셋째, 이사야 10장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 사상을 가르친다. 이사야 10장에서 남은 자란 유다의 심판 이후(1-4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잇수르와 열강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다(20절).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다(21절).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속에 있었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의지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 이 사상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축복을 소망하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기독교인들을 격려하였다.

3.2.2.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은 무고하게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의 운명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한 탄식(1-6절),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7-17절). 예레미야는 그를 죽이려는 아나돗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에 대해 탄식 가운데 질문한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이니까(1절).” 이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악한 이웃이 당장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에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5-6절, 14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12장은 만약 악한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2장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²⁷⁾

예레미야 12장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즉 신정론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제공하였다. 이 장은 예레미야를 무고히 괴롭히는 아나돗 사람들과 언약 백성을 침탈한 악한 나라들이 겉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3.1운동 당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적 해답을 제공 하였다. 겉으로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정론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부당한 현실과 수모를 견디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다.

3.2.3.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심판과 저주를 기술한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이 받게 될 축복(1-14절)과 하나님

27)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69.

의 명령을 불순종한 백성이 받게 될 저주(15-68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삼 사대까지 저주를 경험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신명기 28장은 저주를 축복보다 네 배나 더 많이 서술한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언약 백성들의 순종을 자연스레 이끌어 낸다.

3.1운동에 임하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신명기 28장은 ‘말씀 순종’과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강조하였다. 3.1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명운이 여호와 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1,13,14절)과 여호와 경외(58절)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선포하였다.”²⁸⁾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독립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고, 무한한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민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일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실현될 축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었다.

3.2.4.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다 백성의 죄악(1-8절), 죄에 대한 회개(9-15a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언약 백성의 구원(15b-21절)을 묘사한다. 포로귀환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회복, 그리고 재건을 고대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그것은 저 멀리 요원한 일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약속된 구원과 축복을 가로막는다고 밝힌다(1-2절).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 경건한 의인들이 애통 가운데 백성의 죄악을 회개할 때(9-15절), 드디어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 공의,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신다(15-19절).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회복과 축복을 내포한다.

이사야 59장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큰 신학적 가르침과 영적 통찰을 제공하였다. 첫째, 이사야 59장은 죄의 무서운 결과와 회개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준다. 1-2절은 언약 백성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웃의 피를 흘린 그들의 부정과 부패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 막았을 뿐 아니라 그들속에 황폐와 파멸만을 초래하였다(3-7절).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 500여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국권을 잃어 혼란가운데 있던 3.1운동 당시 일반 백성들과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이사야 59장은 민족적 실패와 황폐함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였다. 우리 민족이 망국의 경험을 하고, 해방과 회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행한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 없이 민족의 독립 또한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신앙적 깨달음은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였고, 1907년 이후 거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신앙적 사상적 동인이었다.

둘째,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한 언약 백성의 회복을 보여준다. 15-18절은 의인의 중보기도를 들은 후,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공의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원수에게 보복하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축복을 보증하는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다. 시온 백성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과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분명 이런 메시지는 일본의 무력적 침략과 탄압 아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해방과 국권 회복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신앙적

28)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88.

통찰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의 도움과 힘도 의지할 수 없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3.1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하였다.

4. 구약성경이 3.1운동을 향해 가진 신학적 함의

이상에서 우리는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역사적 영향력을 끼쳤던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았다. 이 말씀들을 목상하였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문적 신학 지식이나 구체적인 교리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 말씀들은 분명하고 뚜렷한 신학적 사상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 신학적 사상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나라의 멸망 과정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었고, 결국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현실의 탄압과 수모를 견뎌야했던 1919년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의 말씀들을 현실 속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하며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말씀들이 당시 기독교인들과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함의와 사상을 전달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겠다. 첫째,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의로운 통치를 가르친다. 이사야 10장은 시온 백성을 괴롭힌 오만하고 거만한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준다면, 예레미야 12장은 의로운 예레미야와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과 열강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묘사한다. 반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이사야 59장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의로운 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민족 가운데 회복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론을 가르친다. 이 말씀들이 뚜렷이 강조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자행하는 일본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 아울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독립단 통고문」은 무력적 침탈과 무분별한 탄압을 자행하는 일본을 향해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마는 등, 비폭력 평화적 운동을 주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폭력에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신학 사상은 다름이 아니라 위의 구약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둘째,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고취시켰다. 이사야 10장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할 것을 강조한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언약 백성들이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고 말한다. 끝으로 이사야 59장은 의인들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씀들을 읽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와 범죄를 자행한 우리 민족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였다. 특별히 3.1운동과 그 이후 한 민족의 명운이 하나님의 손길과

29)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116.

도우심에 있다는 믿음을 따라 그들은 범국민적 기도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은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을 뛰어넘어 3.1운동이 지속되도록 한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의 힘을 한데 모아 공적인 신앙의 힘을 창출할 수 있었던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이 터전위에서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 주도적이고 담대히 임할 수 있었다.

끝으로, 셋째, 「독립단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불러 일으켰다. 이사야 10장은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묘사하고,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말하고, 끝으로 이사야 59장은 회개와 중보기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술한다.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과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원과 축복을 말씀한다. 이 말씀은 국권을 잃고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 즉 이 구약성경을 읽고 묵상하였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3.1운동의 성공과 그 이후 우리 민족의 회복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구원, 회복, 그리고 축복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3.1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다.

5. 나오면서

구약성경은 3.1운동에 직간접으로 동참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의 성공적 진행과 성취를 위한 신학적 사상적 가르침과 원리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읽고 기도하였던 「독립단 통고문」에 잘 나타난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3.1운동과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기도하였다. 특별히 이 통고문에 명시된 구약성경들은 세 가지 뚜렷한 신학적 가르침을 제공한다: 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② 말씀과 기도에 대한 순종과 헌신, ③ 의로운 민족을 향한 축복과 소망. 이와 같은 신학 사상은 일제의 무력과 침탈 아래에 무력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불러 일으켰다. 즉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과 일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신앙적 해석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범국민적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를 제공하였다.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은 우리 민족의 축복과 회복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세상과 다양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가르침과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신앙적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고 반추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지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들 한다. 이 논고를 통해, 우리는 성경 말씀의 원리, 특별히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바탕위에서 3.1운동과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당시 기독교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하여,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의 3.1운동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3.1운동과 그 이후,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이 민족의 소망과 축복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참고문헌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문사, 1980.

김병조. “독립단 통고문,”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이, 1920.

김학중. 『한국교회 부흥의 꽃을 피운 초석:길선주』 서울: 넥서스Cross, 2010.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기독교사상』 35 (1991): 37-48.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 『신학지남』 77 (2010): 95-136.

송건호. “3.1운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23 (1979): 60-67.

신용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기독교사상』 28 (1984): 128-40.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윤경로. “신민회와 남강의 경제활동 연구,”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 서울: 남강문화재재단출판부, 1988, 74-11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3-156.

_____. 『초기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기독교사상』 34 (1990): 113-32.

_____.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7-20.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 (2018): 301-330.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특집 2

야고보서 5:7-12이 3.1 운동에 참여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

The Posture of Patience that James 5:7-12
suggests to the Christians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주기철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39
2.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설정(5:19-20) | 42
3. 야고보서 5:1-6(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 47
4. 의인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5:7-12) | 55
5. 요약과 적용 | 62
 - 5.1 기록목적과 문맥 | 62
 - 5.2 의인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 | 63
6. 나가면서(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 65